

‘혁신도시 시즌2’ 참여·협력 당부

도, 혁신도시 상생협의회 개최... 연기금 농생명 특화 금융타운 조성 등 10개 사업 연계 추진키로

전북도는 송하진 지사 주재로 15일 혁신도시 상생협의회를 도청에서 개최했다. (관련사진 5면)

이 날 회의에는 12개 이전공공기관을 포함한 17개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혁신도시 상생협의회는 그동안 부기관장이 참석해 회의를 진행해왔으나, 이 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도시 시즌2’를 공약한 만큼 대통령 공약 이행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전기관장과 유관기관장이 직접 참석했다.

정부는 혁신도시별로 공공기관 연계 사업, 신학년 클러스터, 정주여건 등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북 공약으로 전북혁신도시를 연기금·농생명 금융거점으로 육성하는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을 약속한 바 있다.

이와 연계해 새만금 간척지 첨단농업연구소 건립, 농생명 정보기반 융복합 솔루션 개발, 연기금 농생명 특화 금융타운 조성 및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 등 10개 사업을 이전공공기관들이 함께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차장 확충, 중학교 신설과 문화복지시설 설치 등을 건의하였고 도는 이에 시군 및 교육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전북 방문 15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북도청 접견실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전북 현안에 대해 티타임을 갖고 있다.

청 등과 협의해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송하진 지사는 “현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가 4차 산업 혁명의 전진기로서 지역 성장거점으로 도약하고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며, 이전

공공기관에 지역발전을 위한 연계사업 참여와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15년 4월 구성된 ‘전북 혁신도시 상생협의회’는 13개 공공기관과 교육청, 전주시, 완주군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주민 정주여건 개선 등 혁신도시 전반을 논의하는 협의체

이다.

현재 전북혁신도시는 이전대상 12개 공공기관 중 농촌진흥청 등 11개 기관이 이전하여 근무중이며, 올해 9월 한국식품연구원이 이전하면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은 마무리된다. /김진성 기자

도 시니어 일자리 한마당, 22일 개최

오후 1시~5시 전주화산체육관

전북도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라북도 60+ 시니어 일자리 한마당 추진위원회가 22일 오후 1시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전라북도 60+ 시니어 일자리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시니어 JOB, 활기찬 인생2막의 시작!’을 위한 이번 행사는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구직을 희망하는 노인에게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등 노인인력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개막식, 취업마당으

로 민간기업 채용 면접 부스 70개와 생애설계 컨설팅 등 체험마당을 위한 체험부스 30개, 노인일자리 포럼, 사진영상 공모전 등 행사가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노인 구인 기업체 채용 면접 ▲전북노인일자리 포럼(전북의 노인일자리 활성화 방안) ▲시니어 일자리 사진·영상 공모전 ▲이력서(사진 활용), 자기소개서 컨설팅 ▲생애설계 컨설팅 ▲전직 준비도 검사 ▲노인일자리 정보제공 등이다.

이 외에도 노인일자리 사업 안내와 노인생산물 전시·판매 등 홍보 활동도 진행된다. /김진성 기자

도라지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도, 7월말까지 접수

전북도는 FTA 이행으로 인한 수입량 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도라지 생산자에게 가격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7월 31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FTA지원센터에서 총83개 품목에 대하여 2016년도 총수입량,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국내 가격 동향 및 수입기여도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라 2017년도 직접직불금 지급 대상 품목으로 도라지가 선정되었기 때문이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업인 또는 농

업법인에 해당되는 임산물 생산자·단체로서 한 중 FTA 발효일(2015.12.20) 이전부터 직접 재배하고 2016년에 생산, 판매하여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된다.

도라지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7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시군에서 현지조사와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도청 양정기 산림복지과장은 “기간 내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신청자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거쳐 피해가 인정된 경우 피해보전직불금이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최인정 의원, 도교육청 불용액 최소화 방안 제안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인정(군산3) 의원은 14일 전라북도교육청을 비롯한 산하 교육기관 등에서 발생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잔액 발생시 1차 또는 2차 추경 반영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결산심의회 1차추경 전까지 집행잔액을 파악해 이를 추경에 반영한다면,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도민에게 그대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2016년도 결산시 불용액 즉, 집행잔액 1,374억 여원이다. 이는 사장되어지는 예산으로 목적인 변경해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도 교육청이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최 의원은 도교육청과 산하 교육기관이 당해연도 불용계약과 낙찰차액 등을 미리 파악해 1차추경에 반영하는 주장도 폈다.

최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전반기 집행잔액을 모아 특수교육분야 예산 증액을 요청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중화권 관광객 유치 재시동 걸어

푸워·고즈기·추신강씨 앞세워 관광상품 개발... 도, 답사·국제 행사 개최 등

전북도는 사드보복 완화 기대가 높아지면서 중국현지 관계자와 국내 주요인사 등 네트워크마케팅과 도내 우수관광자원 상품개발 등을 통해 하반기 중화권 관광객 유치에 본격적인 재시동을 걸고 있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중국현지에서 전라북도관광홍보대사 ‘푸워 한그루 여행사중국지부장’과 ‘고즈기 회장’이 소통을 통해 2017년 하반기 관광상품을 개발 중에 있다.

전북도 관광홍보사 대사 푸워는 지난 2014년부터 중화권 자유여행객 및 단체관광객 1만여 명을 유치, 13일과 14일 군산 선유도와 군산근대역사거리, 부안채석강, 내소사 등을 방문하여 서해권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현장 답사를 실시했다.

중국문화예술 교류행사단을 유치하고 있는 중국문화예술교류촉진회 고

즈기 회장은 올 하반기 중국문화예술단체 관광상품으로 내장산 단풍과 자연풍광을 엮은 전북도 관광상품을 기획 중에 있다.

전라북도관광명예부지사 추신강은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중국하얼빈 국제방설제 개막식 등 행사에 참여 전라북도 관광자원을 홍보, 중국 하문, 계림, 베이징 국제자유박람회 등에 참여 전라북도관광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전북도는 16일과 17일 국내인바운드 여행사 중화권 여행사 관계자 및 상품기획자 15명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 관광상품 기획을 위해 도내 주요관광자원 답사를 실시한다.

중화권여행사 관계자는 2017년 전북 방문의 해 중점사업인 전북투어패스를 활용한 자유이용시설 및 특별한인기행점 답사, 전주남부시장 야시장 청년를 체험, 새만금 상설공연 ‘해적

관람 후 숙박시설을 시찰한다.

이번 행사는 전북투어패스 활용과 야간관광상품, 공연관광상품을 적극 홍보하여 중화권 자유여행객과 단체관광객을 위한 전북관광상품으로 홍보 판매를 위해 진행된다.

도는 국제청소년 행사 개최를 통한 국제관광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KT&G 아시아청년창업포럼 개최 이후 8월 아시아태평양청년 교류행사(APYE)에 참가하는 아시아태평양청년 150여명이 8월 14일부터 20일까지 도내에 머물며 주요관광지를 방문하며 지역민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 섬치원과 태권도 등 도 지원을 활용한 관광상품을 기획해 10월 ‘선유8경국제페스티벌’과 11월 ‘달로별 미술문화교류축제’ 등을 통해 대규모관광객 유치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도, 동계사료작물 수확 마무리 단계

전북도는 지난 달 중순부터 시작된 동계사료작물 수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의 경우 수확기에 이어진 고온 건조한 기상여건 호조와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조사료 품질등급제 적용에 따라 수입조사료를 대체 가능한 역대 최고 품질의 조사료가 생산될 전망이다.

조사료 품질은 수분함량에 따라 많이 좌우된다. 예년 수분 함량 40~60%에 비해 올해는 적절한 날씨 덕분에 수분함량 25%내외의 고품질 조사료를 생산하게 된 것이다.

작년 파종기 잦은 강우로 파종이 늦어졌지만 지속적인 파종 독려와 홍보 그리고 올해 봄 파종을 적극 장려한 결과 새만금 1,300ha를 비롯하여 재배면적이 19,900ha로 전년 동계작물 수확면적 대비 약 15% 증가했다.

지난 겨울부터 연초까지 이어진 가뭄과 고품질 조사료 생산에 따른 낮은 수분함량으로 단위면적당 생산량

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예년 대비 재배면적이 확대된 만큼 총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도는 국내산 조사료의 재배·이용 확대가 축산물 생산비를 절감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으로서 우리 도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사일리지제조비, 수확용 기계장비, 종자구입비, 생산장려금 지원 등 한해 388억 규모의 정부지원 예산을 투입한다.

또한 집단규모화된 조사료 전문단지 2015년 8개소 5,880ha에서 올해까지 10개소 7,230ha로 생산기반을 확대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조사료의 체계적인 품질검사를 위하여 2014년부터 3년간 도내 12개 시·군에 조사료 품질분석 장비를 보급하였고 지난 4월말 시·군 분석담당자 교육과 품질분석 장비에 대한 정확성 및 재현성 유지를 위한 표준화 작업을 완료했다. /김진성 기자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7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해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전북 남원시 갈치동산 58-2
2. 분묘기수: 2기
3. 개장사유: 재산권행사(태양광사업)
4. 개장방법
유연분묘: 연고자와 합의이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 후 개장신고 후 개장
5. 개장 후 장소: 전북 남원시 숲터길 40-36(남원송화당)
6.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안치기간: 10년
8. 신고처: 장관영(Tel. 010-3680-5147, 010-5330-6258)
9. 기타: 동 지번일대에 추가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10. 신고방법: 분묘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호적, 제적, 족보 등)를 구비해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15일
공고인: 장 관 영